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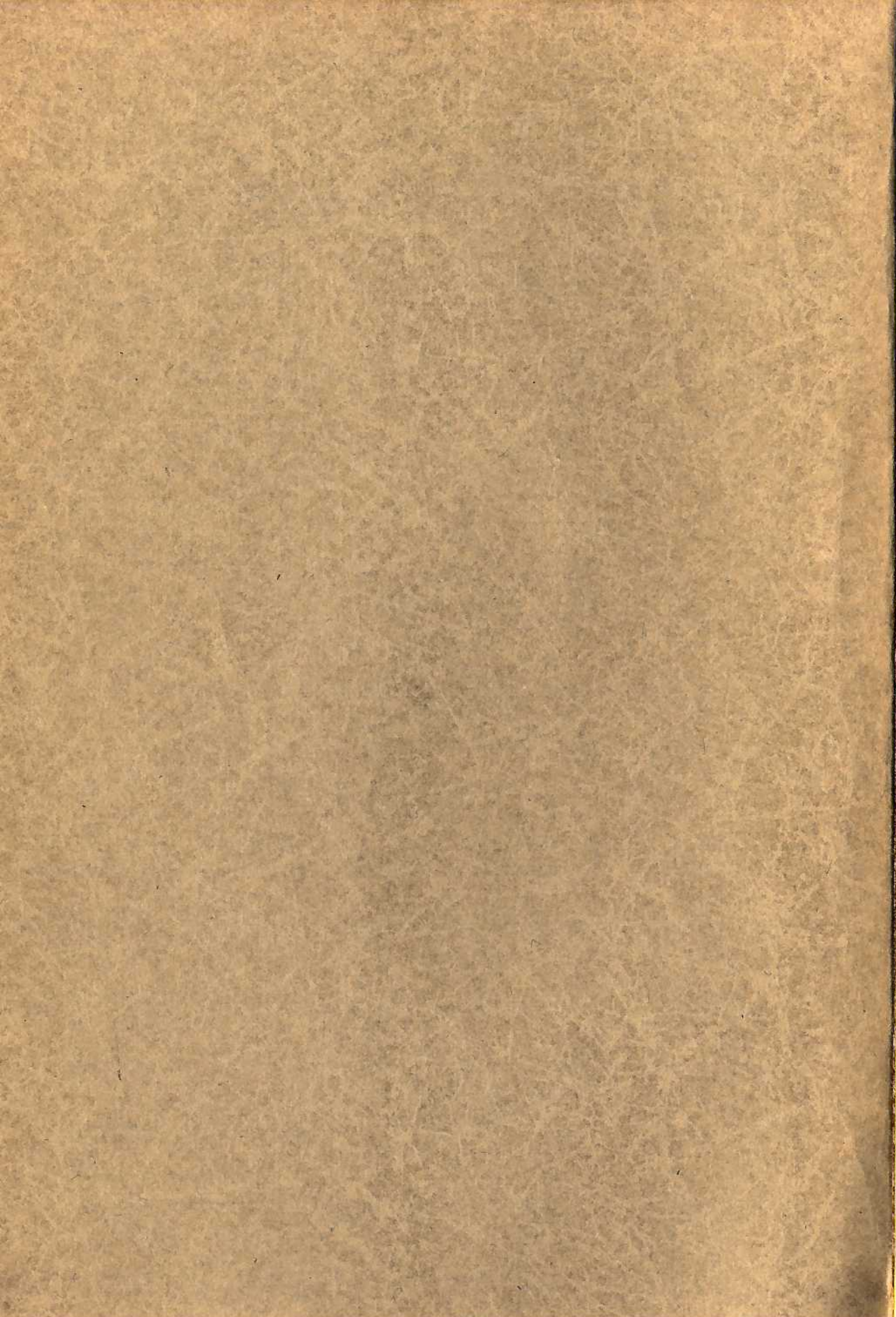
인권 자료실		
연도	구분	수량
98	2/26	87
		10

문화정책연대기획단 3차 자료집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문화·예술분야 탄압 사례집

1997년 11월



- - - - - 탄압일지를 펴내면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주로 그 창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의 관련하여 국가 통치기구가 문화예술 창작물을 자기네들의 의지에 맞게 도구화시키려는 데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요즘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국가기구에 의한 이념·사상적 관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논쟁의 축도 사상문제보다는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다.

여기에서 소위 사회의 건강한 민주화와 역사발전을 주장해 온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참으로 난감한 것이 되기 쉽다. 소위 성적 수치심을 자극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작품을 지지하는거냐는 힐난을 듣기도 하며,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를 찬성하느냐는 비난도 만만치는 않다. 이 문제는 사회발전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내용의 표출과 사회적 수용의 문제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다원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의 음험한 상대주의는 우리에게 더욱 의심스러운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음란과 퇴폐를 계량화, 척도화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비해 우리 진보진영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이유야 어찌되었든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국 창작자들에게 자기검열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할 것이며, 마침내는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일이다. 나아가 전자주민카드 등을 통한 전면적인 사회통제와 인권유린의 불길한 징후를 우리는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기독교 회관에서 갖었던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그 토론회에 참가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연대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문화정책연대 기획단'에서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문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심도깊은 토론회를 펼쳐 나가면서 담론형성과 가치 기준 제시에 일차적 사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1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표현의 자유와 영상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제3차 자료집으로 그동안의 예술 문화 부문의 탄압일지를 만들게 되었다. 교육, 인권 및 사상 부문을 포함하면 실로 많은 탄압사례가 있겠지만, 우리의 활동 속에서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다. 97년이 저물어 가는 이즈음 인권영화제는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으며, 집행위원장 서준식씨는 구속되었다. 우리는 여러 양심수를 겨울 찬방에 둔 채 그들의 건강과 자유로운 몸을 위해 '문화제'를 갖게 되었다.

이 작은 책자가 우리를 둘러싼 억압구조를 쉽게 잊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문화정책연대기획단'에서는 위에서 밝힌 대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997년 11월 중순
문화정책연대기획단 일동
(연락처 간사단체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학.....

문인 탄압 일지

- 1991년 3월 10일
 - 노동자 시인 박노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노맹 조직 활동)으로 구속.
 -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6년 6개월제 수감 중(경주 교도소)
- 1992년 1월 22일
 - 시인 박영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으로 구속.
 -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5년 7개월제 수감(대구 교도소)
- 1993년 4월 27일
 - 소설가 황석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으로 구속.
 - 징역 7년을 선고받아 4년 4개월제 수감 중(공주 교도소)
- 1996년 8월 17일
 - 소설가 김하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 및 국가기밀 누설)으로 구속.
 -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15개월제 수감중(서울 구치소)
- 1997년 5월 13일
 - 소설가 장정일씨를 출판법 위반(외설물 제작)으로 법정 구속.

영화.....

작품 및 영화인 탄압 일지

- 1961년
 - 대한영화사 제작, 유현목 제작 및 감독의 <오발탄>은 영화 대사가 북쪽 찬양으로 지적.
- 1965년
 - 세기상사 제작, 유현목 감독의 <춘몽>에 출연한 여배우 나체 출연으로 의설(음화제조)죄로 입건.
- 1965년
 - 합동영화제작,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란 작품에 서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이만희 감독이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고 재판.
- 1975년
 - 우성사 제작, 임권택 감독의 <알라스카의 늑대>라는 영화의 제목을 문제삼아 <왜 그랬을까요>1)라는 제목으로 바뀜.
- 1976년
 - 국제영화홍업 제작, 이장호 감독의 <그래, 그래. 오늘은 안녕>이라는 작품 마지막 800피트 삭제 당하고 재촬영해 내용 수정.

1) 이효인의 책 『한국의 영화감독 13인』에 의하면 <왜 그랬든가>(1975년/우성사 제작/ 서기원 각본/ 이석기 촬영/ 허장강, 박근형 등 출연)

- 1976년
 - 동아수출공사 제작, 문여송 감독의 <진짜 진짜 미안해>는 먼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작품 전체가 반려되어 창작가가 자진 삭제하고 재심의.
- 1982년
 - 연방영화 제작, 정인엽 감독의 <애마부인1>은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잘림.
- 1985년
 - 동아홍행 제작, 김현명 감독의 <욕망의 거리>는 주인공의 대사 중 '예비군 훈련'이라는 대사 삭제.
- 1985년
 - 박철수 감독의 <헬로 임꺽정>은 감독이 "무자비하게 가 위맛을 본 영화"라고 회고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삭제.
- 1986년
 - 황기성 사단 제작,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2>는 주인공이 간첩으로 오인받아 경찰에게 포위 당하는 장면 삭제.
- 1986년
 - 현진필름 제작, 장선우 감독의 <서울예수>는 원제가 <서울황제>로 바뀜.
- 1986년
 - 대진 엔터프라이즈 제작, 김유진 감독의 <영웅연가>는 <영웅만들기>라는 원제에서 전두환대통령을 영웅화하려는 느낌이 든다 해서 <영웅연가>로 바뀌었고, '제벌'이라는 말은 '그림'으로 수정되고, 도입부에서 흑인이 신부를 쓰는 감정은 반미감정을 부추킨다 해서 까맣게 처리되었음.
- 1986년
 - 세원필름 제작, 신승수 감독의 <달빛사냥꾼>은 감독의 의도대로 라스트시퀀스를 몰고 가지 못하고 수정당함.

1986년

- 김수용 감독의 <허튼소리>는 공륜이 10장면 이상 삭제 명령에 창작자가 감독 포기선언을 함으로 영협에서 공륜 개편 주장.

1986년

- 홍기선의 8mm 단편영화 <파랑새>는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서울영상집단의 이효인과 함께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선고.

1987년

- 고려영화 제작, 정지영 감독의 <거리의 악사>는 주인공이 쫓차에 연행 당하는 장면,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집을 철거 당할 때 기절하는 장면이 삭제.

1988년

- 독립영화 집단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는 광주항쟁을 소재로 예술극장 한마당(대표 유인택)에서 유료상영하였으나, 영화법 위반 혐의로 장산곶매 대표 홍기선과 유인택을 고발, 각 30만원의 벌금형. 이에 대해 홍기선과 유인택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91년 다시 피고인들은 이건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단한 교문을 열며>와 함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 받음.

- 80년대 중반 사회참여(사회비판) 계열의 영화들이 다수 기획되었으나 시나리오 검열, 제작사의 제작회피 등으로 작품화되지 못했다. <도바리>, <삼청교육대>, <객지>, <붉은방> 등2)

2) 이효인 「1980년대 한국영화에 대하여」, 『영화언어』 제4호, 1989년 ; 김혜준, 「80년대 한국영화운동의 점검과 90년대 과제와 전망」, 『민족영화2』, 서울 : 친구, 1990

1989년

- 화천공사 제작, 박종원 감독의 <구로아리랑> 20여 군데 삭제, '부자놈'이라는 대사도 삭제.

1989년

- 뉴비드프로덕션 제작, 진유영 감독의 <인간시장, 89>는 물고문, 성고문, 할복자살 장면이 잘림.

1990년

- 장산곶매 제작, 장동홍 감독의 <파업전야>는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않고 연세대학교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영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한마당 대표 김명곤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1990년

- 동아수출공사 제작,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은 주인공이 운동권 활동을 회상하는 장면 중 광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1990년

- 태흥영화 제작, 정지영 감독의 <젊은날의 초상>은 대학생 투신 장면과 경찰이 정복을 입고 술집 작부와 어울리는 장면이 규제 당함.

1990년

- 대경필름 제작, 조금환 감독의 청춘물 <있잖아요, 비밀이예요1>은 주인공 하히라가 디스코 클럽에서 약먹는 장면, 옥상 투신 장면 등이 잘림.

1990년

-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는 광주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원래 상영시간 116분에서 초반부 16분을 자진삭제 후 심의 신청하였으나, 상영시간의 4분의 1인 25분 13초를 추가로 가위질 당함.

1986년 ■ 김수용 감독의 <허튼소리>는 공륜이 10장면 이상 삭제 명령에 창작자가 감독 포기선언을 함으로 영협에서 공륜 개편 주장.

1986년 ■ 홍기선의 8mm 단편영화 <파랑새>는 영화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서울영상집단의 이효인과 함께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선고.

1987년 ■ 고려영화 제작, 정지영 감독의 <거리의 악사>는 주인공이 짝차에 연행 당하는 장면,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집을 철거 당할 때 기절하는 장면이 삭제.

1988년 ■ 독립영화 집단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는 광주항쟁을 소재로 예술극장 한마당(대표 유인택)에서 유료상영하였으나, 영화법 위반 혐의로 장산곶매 대표 홍기선과 유인택을 고발, 각 30만원의 벌금형. 이에 대해 홍기선과 유인택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91년 다시 피고인들은 이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단한 교문을 열며>와 함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 받음.

■ 80년대 중반 사회참여(사회비판) 계열의 영화들이 다수 기획되었으나 시나리오 검열, 제작사의 제작회피 등으로 작품화되지 못했다. <도바리>, <삼청교육대>, <객지>, <붉은방> 등2)

2) 이효인 「1980년대 한국영화에 대하여」, 『영화언어』 제4호, 1989년 ; 김혜준, 「80년대 한국영화운동의 점검과 90년대 과제와 전망」, 『민족영화2』, 서울 : 친구, 1990

1989년 ■ 화천공사 제작, 박종원 감독의 <구로아리랑>20여 군데 삭제, '부자님'이라는 대사도 삭제.

1989년 ■ 뉴버드프로덕션 제작, 진유영 감독의 <인간시장, 89>는 물고문, 성고문, 할복자살 장면이 잘림.

1990년 ■ 장산곶매 제작, 장동홍 감독의 <파업전야>는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않고 연세대학교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영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한마당 대표 김명곤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

1990년 ■ 동아수출공사 제작,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은 주인공이 운동권 활동을 회상하는 장면 중 광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1990년 ■ 태흥영화 제작, 정지영 감독의 <젊은날의 초상>은 대학생 투신 장면과 경찰이 정복을 입고 술집 작부와 어울리는 장면이 규제 당함.

1990년 ■ 대경필름 제작, 조금환 감독의 청춘물 <있잖아요, 비밀이예요1>은 주인공 하히라가 디스코 클럽에서 약먹는 장면, 옥상 투신 장면 등이 잘림.

1990년 ■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는 광주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원래 상영시간 116분에서 초반부 16분을 자진삭제 후 심의 신청하였으나, 상영시간의 4분의 1인 25분 13초를 추가로 가위질 당함.

- 1991년
 - 이석기 감독의 <나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는 섹스장면과 마약 그리고 전직 고관의 몰락이야기 등이 삭제.
- 1992년
 - 장산곶매는 16mm 극영화 <단한교문을 열며>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상영하였으나, 사전심의를 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이에 대해 장산곶매는 1993년 10월 8일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 위헌판결.
- 1995년
 - 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 제작, 박성배 감독의 <해적>은 35군데 93컷트가 잘렸는데, 공문에서 삭제한 부분은 23군데 57컷트 뿐이고 나머지는 영화부장과 영사기사가 임의로 삭제.
- 1996년
 - 하명중영화제작연구소, 양윤호 감독의 <유리>는 조계종의 범복을 입은 승려의 성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국내 상연용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였으며, 칸느출품용 필름은 문제삼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종결.
- 1997년
 - 한씨네마텍 제작, 구성주 감독의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는 미혼모의 여주인공의 농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김영삼 씨인데 지금은 대통령이예요……사실은 김대중씨 아들이예요”라는 대사가 등급보류의 사유가 되어 영화사가 자진 삭제.
- 1997년
 - 미라신코리아 제작, 장선우 감독의 가출한 10대들의 삶을 그린 <나쁜 영화>는 몇몇 장면이 문제되어 등급보류 결정이 나자 영화사가 자진 삭제.

미술

미술작품 및 전시, 작가 탄압일지

- 1969년 10월
 - ‘현실동인 창립전’(오윤 외) 이 대학당국의 방해로 취소.
- 1980년 7월 23일
 - ‘서울현대미술제’에 초대 출품된 작품 ‘시민’ 이 당국에 의해 철거.
- 1980년 10월
 - ‘현실과 발언 동인 창립전’이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으나 행정당국의 압력으로 좌절.
- 1980년 10월
 - ‘2000년 작가회 2회전’이 광주 아카데미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으나 경찰 당국의 압력으로 일부 작품을 철거함.
- 1981년 1월
 - 행정 당국에서 ‘불온작가 명단’을 작성, 이에 문공부에서 5명(대상작가 ; 임옥상, 김경인, 강 광, 홍성담, 신경호)을 지명하여 대다수 작품을 압류하고 그 가운데 교직자에 대한 경고, 소속 단체의 탈퇴 종용.
- 1982년
 - 기독교농민회에서 제작된 김봉준의 <농사꾼 타령>이 당국에 의해 압수.
- 1984년 5월
 - 화가 최민화의 만화작품 <세 오랑캐>를 문제삼아 작가를

경찰당국이 연행, 4일간 억류 조사한 후 석방하며 작품 압류.

1985년 5월 ■ 홍성담의 판화작품 <대동세상>을 인쇄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쳐 2,000여 점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감.

1985년 5월 ■ 광주민중항쟁 기념관에 설치된 김경주 등 4인의 공동작품 <광주민중항쟁기념 신장도>를 경찰 당국이 탈취, 이 때 각종 사진, 판화 및 작업도구와 책자까지 함께 탈취해 감.

1985년 7월 20일 ■ '19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이 아람문화원 전시실에서 13일부터 개막 전시 중 20일 오후 1시경 종로경찰서 형사 5명이 전시장에 난입, 기획위원회 측에 전시중지 및 작품 철거 요구와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작가들을 밀어내고 몇 점의 작품을 떼어 바닥에 팽개침. 오후 5시에 열릴 세미나에 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취소하라고 협박.

1985년 7월 21일 ■ 오후 9시경 아람문화회관 측은 경찰의 압력에 의해 건물을 폐쇄함. 오후 2시경 항의하는 작가 19명을 강제 연행 후 오후 4시 30분경 14명의 작가를 풀어주고 기획진 및 출판 작가 5명을 불법 구금 조사.

1985년 7월 24일 ■ 「20대의 힘전」 기획진 및 출판작가 5명(손기환, 장진영, 박진화, 김우선, 김준호)유언비어 제작 유포죄로 구류 선고.

1985년 8월 1일 ■ 「20대의 힘전」 출판 작가 3명(박불똥, 장명규, 박영률)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 선포.

1985년 8월 1일 ■ 미술동인 '임술년'의 전시회가 광주 다리화랑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 「민중시대의 회화전」이 아람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

1985년 8월 30일 ■ 김봉준과 두령이 제작한 대형 걸개 그림 2점을 민중불교 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우란분제 행사용으로 빌려주었으나 당국이 이를 불법 탈취.

1985년 9월 24일 ■ 빼앗긴 작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작가 김봉준을 연행,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 선포.

1985년 10월 ■ 서울 근교에 있는 작가 박홍규의 자취방을 불시 수색하여 판화, 목판화 및 제작도구 일체를 탈취.

1985년 11월 30일 ■ 민통련에서 발행한 그림달력 「민족미술열두마당」을 당국에서 탈취해 감.

1985년 12월 4일 ■ 당국에서 그림달력 「민족미술열두마당」을 2차 탈취.

1986년 1월 ■ 서울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회 '81-84 문제작가 작품전'에 출판된 신학철의 작품 중 일부를 당국에서 임의로 지정, 철거 요구함.

1986년 5월 4일 ■ 서울노동운동연합 선전부원 이은홍(네칸만화 강순이)을 보안사 요원들이 연행, 인천사태와 노동자 신문 제작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

- 1986년 7월 5일 ■ 그림마당 민 개관기념전의 하나인 '젊은 세대에 의한 신선한 발언전'에 전시된 작품 5점에 관하여 문공부에서 철거 요구.
- 1986년 7월 9일 ■ 일본 JAALA 미술가회의 기획으로 일본 동경 미술관에서 열린 「제3세계와 - 제5 민중의 아시아전」에 한국작가 23명의 작품 66점이 출품되어 이 행사에 초대된 원동석, 손장섭, 김정현의 출국이 당국에 의해 저지.
- 1986년 7월 ■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족미술협의회 회원의 작품으로 전시 중, 당국이 불법 난입하여 약 50여 점의 작품 탈취.
- 1986년 7월 9일 ■ 6명의 미술 대학생이 자신들이 입주한 신촌역 옆 건물 외벽에 대형 벽화를 제작하던 중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 등 약 20여 명이 페인트와 로울러를 들고 와 벽화를 완전히 파괴함.
- 1986년 8월 2일 ■ 화가 유연복, 홍황기, 김진하, 최병수 등이 유연복의 집 담에 17×3미터의 대형 벽화 상생도를 거의 완성해 갈 무렵 당일 오후 3시 경 경찰, 구청, 동사무소 직원 70명이 몰려와 화가 유연복을 강제 연행하고 벽화는 수성페인트로 파괴.
- 1986년 8월 3일 ■ 화가 유연복, 홍황기, 김진하, 최병수가 벽화 파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4명을 광고물 등 관리법 가운데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 저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
- 1986년 11월 ■ 안성에서 중앙대생들에 의하여 제작된 안성벽화가 당국의

- 압력을 받은 건물주 손에 의해 파괴.
- 1987년 2월 1일 ■ 광대원(민미협 홍보부장),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규탄대회의 전단제작 관계로 대공수사단에 연행, 5일간 조사받고 불구속 입건.
- 1987년 3월 ■ 그림마당 민에서 민족미술 협의회 주최로 「반고문전」을 개최하였는데 경찰 당국에서 전시회 부대행사를 방해함. 이에 작가들이 항의하자 주재환 대표를 불법 연행함.
- 1987년 7월 2일 ■ 고 이한열군 영결식장인 시청 앞 광장에 최민화의 대형 그림 「그대 뜬 눈으로」(이한열 열사 부활도)가 시민 학생들에 의하여 연세대에서 세종로까지 가두행진에서 전시되었는데 전투 경찰에 의해 파괴.
- 1987년 9월 1일 ■ 「민족해방과 민족통일 큰 그림잔치」 제주시 순회전 중 '백두의 산자락 아래', '한라산' 등 4점의 대형 걸개 그림이 압수되고 제주 순회전 기획자 문행섭이 연행되어감.
- 1987년 9월 7일 ■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주재환을 종로경찰서에서 연행 불구속 입건.
- 1987년 9월 7일 ■ 그림마당 민에서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이 열리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에서 이상호, 전정호 사건과 관련 증거를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대형걸개 그림 <평등을 향하여> 등 작품 3점을 압수해 간 뒤 무혐의로 반환.
- 1987년 9월 30일 ■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위원장 손기환을 서울 마포경찰

서대공 3계 형사들이 작업실에서 연행해 감.

1987년 10월 2일 ■ 이상호, 전경호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죄와 반국가 단체 찬양죄 위반혐의로 구속.

1987년 10월 3일 ■ 손기환이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 사업으로 만화 무크지 만화 정신 2집을 편집, 제작 중이었는데 수록될 만화 작품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불법출판물 제작죄가 씌워졌으며, 손기환의 회화작품 중 기초자료인 군사시설 사진이 문제되어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누설죄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됨.

1987년 10월 27일 ■ 건국대 총학생회가 그림패 「환」(종합시각매체연구소)에 의뢰하여 건대학생항쟁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교내 사회과학관에 높이 7m의 청동투사상을 완성하여 설치하였으나 심야에 전투 경찰 2,000여 명이 난입, 기중기를 사용하여 강제 철거함.

1987년 11월 ■ 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실에 남대문 대공 3계 소속사복 형사 15명이 불법 난입, 6월 항쟁 기념엽서에 대해 반미 반정부 감정 고취, 사회 불안 고취라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7,000매 전량 압수.

1987년 11월 30일 ■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협의회 등의 광주항쟁 비디오 상영 및 사진 전시 중 문양곤(민정당 특수요원)외 7-8명이 난입, 송만규의 걸개그림, '그날이 오면'의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을 불법 압수.

1987년 12월 13일 ■ 을지로 2가 유진제본소에서 체본 중인 '반쪽이 만화' 3,000부를 중부 경찰서에서 전경 50여 명을 동원하여 영장없이 강제로 압수.

1989년 9월 20일 ■ 홍성담을 북한에 <민족해방도> 전달, 독일 민족문화학교에 교육용 책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의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90년 10월 ■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가 북한의 활동과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찬양고무죄로 구속.

1991년 4월 ■ 반아파트헤이트전이 운영본부(예술의 전당)측의 자체 검열에 걸려 회화 5점, 포스터, 판화, 크로키 30점 전시 취소당하고, 도록의 제목이 '국제미술전'으로 수정당했으며, 자크 데리다를 포함해 11명의 논문 게재 금지 조치.

음악

음반 및 음악인에 관한 탄압일지

- 1993년 10월 20일 ■ 가수 겸 가요 작가 정태춘과 박은옥이 가요 사전 심의 거부하고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 제작과 출시 강행하고 사전심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개최.
- 1993년 10월 27일 ■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문체부에 의법 조치를 의뢰하는 공문 발송.
- 1993년 11월 1일 ■ 문체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정태춘 고발 조치.
- 1994년 1월 25일 ■ 정태춘 음비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 1994년 4월 ■ 담당 재판부에 정태춘은 해당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 1994년 5월 10일 ■ 재판부에서 정태춘이 위헌심판제청 신청한 법률 중 사전 심의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키로 함에 따라 재판 중단.
- 1995년 3월 초 ■ 공연윤리위원회에 심의 제출한 24곡 중 12곡의 노동가요에 대해 계급투쟁과 정치선동을 자극하는 표현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심의반려 및 개작지시

- 1995년 3월 말 ■ 공연윤리위원회에 제심의 받기위해 제출한 12곡 중 9곡의 심의반려 및 개작지시
곡 : <끝내 살리라>, <노동자선언>, <열사가 전사에게>, <민주노총 진군의 노래>,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 <가자, 노동해방>, <사람이 태어나>, <고백>, <진짜 노동자3>
- 1995년 3월 말 ■ 노동가요 공식음반제작위원회에서는 노래의 완성도 및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원가사 그대로 음반에 실기로 결정하고 공연윤리위원회에 통보, 공연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후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함.
- 1995년 4월 말 ■ 공식음반 발매
- 1995년 5월 - 6월 ■ 화음레코드에서 음반배포 10일 후 공연윤리위원회의 압력 속에 심의와 절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진수거 결정, 추후 제작위원회와의 논의 속에 음반의 합법화 및 시중 판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1995년 6월 ■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납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음반배포하지 않았다는 절차를 문제삼아 화음레코드 대표 소환, 고소, 고발 예정 통보.
- 1995년 7월 ■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시중에 배포된 음반에 대한 자진 수거 등 사후처리에 대한 정상을 참작 화음레코드에 고소, 고발 취소 및 경고처리 결정

- 문체부에서 음반법 위반으로 청문회 개최, 7월 20일자로 화음음반사 대표 출두 요구
- 청문회 이후 문체부에서는 8월 한달 간 영업 정지 결정.

1996년 2월 3일

- <희망의 노래> 1- 4권을 대표 편집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서울매체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은진대표 연행, 꽃다지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자 학생에 대한 선전선동과 그런 내용을 담은 책과 노래tape을 배포하고, 공연 "95 자, 우리 손을 잡자"를 기획한 혐의로 서울매체· 좋은 세상· 민맥출판사 대표 원용호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집 앞에서 연행함.

통신

- 1993년 11월, 12월 ■ 사노맹 등 조직 유인물을 게시하고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현철동) 이틀간 폐쇄 및 김형렬씨 구속/유죄.
이후 현철동, 희망터, 전대기련 등 특정동호회에 올라온 글은 계속 문제가 되어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킴.
- 1994년 2월 ■ 내외신문에도 게재된 김일성 신년사를 게시한 건으로 천리안 [희망터] 이창렬씨 구속/유죄.
- 1994년 3월 ■ 서적 <아나키즘>을 게시하고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현철동] 김영선씨 구속/유죄.
■ 서적 <붉은산 검은피> 및 <공산당 선언>을 게시한 건으로 [현철동] 진상호씨 구속/유죄, 항소/무죄.
- 1994년 10월 ■ 각 통신망 [청와대 큰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 1995년 1월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정보통신 윤리위원회)조항 신설.
- 1995년 4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 1995년 5월 ■ 천리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의를 사칭하여 [희망터] 자료 무단 삭제.
- 1995년 6월 ■ 하이텔, 한국통신노조 파업 관련 게시물 무단 삭제 및 [한국통신노조 CUG] 무단 폐쇄, 이용자들의 항의로 10일만에 폐쇄 철회.
- 1995년 7월 ■ 김일성 사망 애도와 토론의 건으로 하이텔 [전국대학

- 신문기자연합] 회원 검찰 수사.
- 1995년 9월
- PC통신논객으로 유명한 김완섭과 신경모라, 성에 대한 급진적인 표현으로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각각 하이텔, 천리안으로부터 이용금지 징계당함. 이후 이들은 각 통신사마다 이용금지 조치를 계속 받음. 이와 같은 사건들과 일련의 '불량이용자' 적용은 각 상업PC통신회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별하고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음.
- 1996년 1월
-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천리안 [현철동] 황의선 씨 구속/유죄.
- 1996년 4월
-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하여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1996년 5월
- 게시판 갈무리 보관한 건으로 [현철동] 김바로씨 구속/유죄.
- 1996년 6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나다 홈페이지의 국내 접속 차단 및 음란한 사이트로 규정된 몇개 사이트 접속 차단.
- 1996년 8월
- 나우누리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CUG] '수색영장'으로 폐쇄.
 - 총선 관련 통신 이용자 김동욱씨 유죄, 항소/무죄.
- 1996년 9월
- 잠수함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고 토론한 통신 이용자 33명 불구속 수사. '그들이 무장공비 일까'라고 게시한 윤석진 씨, 구속/무죄. 한편,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글의 맥락중 "남한 당국이 사건을 조작해 내서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

- 들이 쫓겨하자!"라는 부분만 왜곡발췌하는 등 PC통신 위협론을 제기함.
- 신경모라 '유방시위'(노출단속엔 유방시위로 맞서자는 내용)의 글을 이유로 천리안으로부터 재징계당함. 이 과정에서 센타는 여성학 동호회내의 글도 삭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킴.
 - 총선 관련 토론 통신 이용자 김동업씨 유죄.
 - 총선 관련 토론 통신 이용자 권종성씨 유죄.
 - 시사와 관련한 이용자의 게시물 수가 감소함.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9월 선거법의 엄중적용 발표 이후에도 나타남. 특히 여당에 관한 논의가 급감함.
- 1996년 11월
- 천리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삭제요청한 전국연합의 '때려잡자 안기부' 시리즈 중 요청받은 제6회분 뿐 아니라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추가 삭제.
- 1997년 1월
- 수사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입법예고. 통신연대, 민변 등의 사회단체 반발로 무산.
 - 나우누리, 회사측 운영자가 이용자의 전자우편을 열람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됨.
- 1997년 3월
- 이승희씨 누드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상범씨 수사.
- 1997년 5월
- 이승희씨 성대한 환영 속에 국내 방문.
- 1997년 6월
-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전해투, 전국연합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 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안기부에서 나우누리 측에 이용자 이훈희씨에 대한 게시물, 전자우편 등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몇몇 언론에서 취재했으나 근거자료 부족으로 기사화되지 못함.

이 과정에서 안기부·기무사·경찰청 등에서 PC통신 회사측에 이용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남.

1997년 7월 ■ '청소년보호법' 발효.

■ 1995년 6월 한국통신노조CUG를 둘러싼 한국통신노조와 하이텔의 손해소송에서 한국통신노조 패소.

1997년 8월 ■ 북한 뉴스 홈페이지 (www.kcna.co.jp) 차단.

1997년 10월 ■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사용자도 많은 미국의 한 WWW PC통신서비스(www.geocities.com) 전체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논란을 빚음.

■ 북한 사이트 접속자 내사 중. 검찰은 우선적으로 천리안 하이텔 등 국내 4대 통신서비스 업체를 경유해 북한 웹사이트에 연결한 이용자들을 파악하여 이적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통신공간의 행적을 모두 감시, 기록해야하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됨.

정보통신분야 탄압에 관한 신문기사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23일자)

안기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통신 업체가 컴퓨터통신 이용자의 사용자 이름(ID)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폐쇄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국민회의)과 정통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한 통신감청 건수는 2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8건보다 2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2164건은 일반범죄 수사, 227건은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통신감청을 했다.

하지만 179건은 감청을 시작했으나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건에 비해 350% 증가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신감청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한 1452건으로 가장 많고, 검찰이 308% 늘어난 539건, 안기부는 163% 많아진 355건, 기무사는 155% 증가한 45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의 컴퓨터통신 사용자이름 사용정지와 폐쇄 건수는 3026건으로, 지난해 1년치 2413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데이콤이 1838명, 나우콤이 623명, 한국퍼시통신이 359명의 사용자 이름 사용을 각각 1~3개월 동안 정지시켰고, 삼성에스디에스는 206명의 사용자 이름을 폐쇄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의 우편검열 건수는 3만3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8813건보다 30% 준 것으로 나타났다.

